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연하(煙霞)의 갑피 든 병(病)[연하고질, 천석고황. 자연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것]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 자연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에는 어떤 약도 효과가 없어

강호(江湖)[자연]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밧기 되어세라

- 자연에 버려진지(파묻혀 산 지) 십년이 넘었구나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그 성은(聖恩)인가 호노라

- (십년 넘게 자연에 있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임금의 은혜인가 하노라.

의역 :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임금의 은혜이다.

<제3수>

돌 붉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원관념:물결] 일다

- 달 밝고 바람이 잦아지니 물결이 비단 같구나

단정(短艇)을 밧기 노하 오락가락 호난 흥(興)을

- 조각배를 비슴듬히 놓아(띄워) 오며가며 하는 흥(즐거움)을

백구(白鷗)[자연물]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속세, 자연과 대비, 부정적 의미] 알까 호노라[물아일체]

- 흰 갈매기야, 너무 즐기지 말라(나와 함께 자연을 너무 즐기지 말라) 속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을 알까 하노라(나만 즐기고 싶다)

<제5수>

식록(食祿)을 굿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하니

- 벼슬살이를 그만 둔 후로 낚시하며 생계를 이어가니

험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호건마는

- 생각 없는 아이들은 괴롭겠다고 하지마는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호노라

- (그냥 내가 이렇게 살게) 두어라.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제9수>

▣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내용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3수에서는 흥겹고 한가한 풍류적 생활을, 5수에서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소일하는 즐거움을 그리고 있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은사(隱士)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수의 끝에 나타나는 '성은인가 하노라'는 작자 미상의 '감군은'이나 송순의 '면앙정가', 농암 이현보의 등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유교적 이념과 자연애를 결합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 핵심 정리

- * 작자 : 나위소
- * 갈래 : 평시조, 연시조(連時調)
- * 명칭 : 강호가(江湖歌), 강호한정가(江湖閑情歌)
- * 내용 :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선비의 생활을 읊은 것이다.
- * 제재 : 강호 생활(江湖生活)
- * 주제 :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